

취임에 즈음하여

Inaugural Address

이외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친애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33회 정기총회에서 우리협회 23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대의원님과 회원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이끌어 오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김영수 회장께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전국의 7천여 회원을 대표하고 건축계의 리더 그룹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건축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회원과 협회의 재도약을 위해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로 3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협회는 그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세기말적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는 지난 역사의 뿌리마저 뒤흔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국민의 정부」의 각종 개혁 작업들은 우리 건축사의 전문적 위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의 시대 상황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해서는 우리에게 파멸밖에 없음을 단언합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난관을 돌파하려는 용기와 실천적 협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 몇 가지 저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업무 영역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과감하게 업무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수입원 확대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 경제대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시공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M, 컨설팅, 나아가 건축물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우리의 업무영역에 포함되게끔 제도화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건축문화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당면해 있는 건축관련 제도 개선들이 현실과 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축의 원칙과 이론이 외면된 채 경제논리로 접근해 왔던 관계당국의 그릇된 인식에 기인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같이 불행한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정부, 대국민 건축문화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건축3단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일반인에게 건축이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예술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전문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지역 전 건축사모임인 아카시아 (ARCASIA)의 「아카시아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의 건축문화적 역량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합리화로 「봉사하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건축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회원들의 실정을 헤아려 기존 회비에만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협회 재정자립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모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는 등 「회원 서비스」가 중시되는 체제로 전환하여 회원에게 「봉사하는 협회」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관행의 개선은 물론, 협회발전을 가로막고 회원간 갈등을 조성하는 어떠한 형태의 도전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실하고 건전한 회원들이 일한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건축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선진화된 건축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협회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상에 굳게 섰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결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시대적 난국을 돌파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선진 건축사상을 이룩합시다.

앞으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고견을 주십시오. 그 어떤 의견이나 비판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